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5

2001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 시편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기도제목

1.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을 따라 행하며 전하게 하소서.
2. 우리 교회가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모든 교회 일꾼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4.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진정한 영적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5. 새벽기도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더욱 힘있게 하시고, 5부예배를 통하여 젊은 일꾼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소서.
6.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저희를 써주소서.

5월의 소망



5월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분주함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주일, 아버지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나누지 못했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선물을 사고 감사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들과 산을 찾아다니는 일에 많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주함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을 가장 사랑하셨던 자애로우신 주님,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진리의 스승.

온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그리스도!

그 분을 더 사랑하고 그 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계절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가득하게 밀려들기를 소망해 봅니다.

2001년 5월

위임목사 김 성 관

시편 서론

구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은 본래 유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찬송이나 기도의 지침서였습니다. 때문에 시편들은 유대 민족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와 찬양의 매개였던 경배 및 예배용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구약 역사의 모든 시대에 걸쳐서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의 유형을 ①슬픔의 시(3-7, 9-10, 22, 32, 42-44, 51, 60, 94, 102, 137편), ②감사의 시(18, 30, 32, 34, 56, 75, 107, 118, 138편), ③찬송의 시(19, 47, 92, 96, 103, 105, 111, 113-114, 117, 146-150편)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범주는 모두 여러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의 백성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편은 율법서와는 달리 인간의 입술로 고백되어진 것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합하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이 고백과 아울러 시편은 계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해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깊이 그를 섬겨야 하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서와 더불어 시편이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에게 가장 자주 인용된 책이라는 사실은 전혀 놀랄일이 아닙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생애의 여러 다양한 면모들(시 22:1; 막 15:34)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의(시 110:1; 행 2:31-36)를 설명하기 위해 시편을 자주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2, 8, 22, 40, 45, 110편과 관련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편이 예언적이거나 메시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시편에서 그리스도의 생과

사역의 전부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구자들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대교회는 이 찬양들, 탄원
시들, 교훈 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며, 이 시들을 그들의
삶과 예배의 기초로 만들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충현의 성도들 역시 이
시편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마음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우주적인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찬양하기를 소
원합니다.

주요내용

- | | |
|-----------------------|------------|
| 1. 사람과 창조에 관한 시편 | (1~41편) |
| 2. 이스라엘과 구속에 관한 시편 | (42~72편) |
| 3. 예배와 성전에 관한 시편 | (73~89편) |
| 4. 우리의 지상 체류에 관한 시편 | (90~106편) |
| 5.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시편 | (107~150편) |

• 각 부문은 각기 찬양 송영으로 끝나며(41, 72, 89, 106편), 마지막
부문에는 송영이 여섯 장이 있습니다(145~150편)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제왕시로서 아마도 다윗을 계승한 왕들의 즉위식 때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송,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1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우리가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치 않겠다고 말합니다(3-4절).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모습을 용납하지 않으며 여호와와 그의 집에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3, 5, 7-8절).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을 살피 함께 하나님의 성을 부흥케 할 것을 증거합니다(6절). 그러면서 그는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므로 항상 주의 성령이 자신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2절).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의(義)의 백성으로서 인자하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또한 악한 자들이 주의 교회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복음의 의로 진리를 수호해야 합니다. 나아가 복음의 지체들과 함께 주의 나라를 부흥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음의 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은 때때로 도저히 자신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절박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지금 대단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의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3-11절).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의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간절히 기도합니다(1-2절).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약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17절).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12-22절).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다시 한 번 노래하면서 자신의 현재의 환란과 회복을 위하여 간구합니다(23-28절).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 속에 빠져 절망하지 말고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택하심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히13:8).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 고난 중에서도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남은 생애 동안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 니 하나님을 영원토록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시편 150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 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1-2절)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행위 로는 도저히 사함 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 니다(3-4, 12절). 뿐만 아니라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만 족케 하시며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5, 17-18절). 그러 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 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서서(14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 나님이시요(13절)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시는(9-10절) 은혜로우시 며 자비하심이(6-8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크신 분이십니다(11절).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 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온 영혼을 다하여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 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삶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온 영혼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②
김성관 위임목사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 영혼으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만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저자와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은 전편인 103편처럼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전편에서처럼 여전히 자기 영혼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선포합니다(1, 35절).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죄사함의 은혜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창조와 섭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관대하며 지혜로우신 다스리심 때문입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존귀함에 대하여 노래합니다(1절). 그런 후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사역에 대해 증거합니다(2-9절). 그 다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하여 증거합니다(10-23절). 또한 피조물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 주시는 관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노래합니다(25-32절). 이제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이렇게 많으므로 자신은 평생동안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24, 33-34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통치로 인하여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혜와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지혜로 창조하시고 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충현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며 놀라우신 지혜로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전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시입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한 그 성호를 자랑하라고 선포합니다(1-4절). 시인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5-8절). 시인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증합니다. 먼저 자신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9-11절). 그런 후 그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모든 역사적인 과정을 하나 하나 말합니다(12-15절). 이 모든 역사적인 과정에서 보여 주는 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언약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면서 시인은 말합니다. 이처럼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찬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편 기자처럼 이 언약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까? 그렇다면 값없이 구원을 허락하신 언약의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허락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 인간들이 갖는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와 인간의 약점들을 극복하며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착각은 인간들을 오히려 어리석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백성들이 교만과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오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통하여 불순종하며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며 구속하시는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6-4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범죄하는 모습과 그 가운데서도 참으시며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즉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습(6-12절), 출애굽 후 40년간 광야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모습(13-33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34-4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48절을 통해 자기 욕심대로 살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었지만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불순종과 패역한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교만함과 범죄의 역사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교만한 사람은 결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류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지를 못 했습니다.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롬1:21).

본 시는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해방된 역사적 사건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주권적 능력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어서 4-32절을 통해서 그 찬양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적으로 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친 광야를 지나는 과정(4-22절), 흉흉한 바다를 향해하는 과정(23-32절)으로 비유하면서 생생하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3-4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보다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공의로운 통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거칠고 흉흉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결국 구원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 제목 / ① 주여!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예배위원, 성례위원, 안내위원, 헌금위원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땅은 아직 사탄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그늘 속에 있으면 계속되는 사탄의 공격과 죄의 권세로 인하여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생은 사탄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그 사탄의 공격과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늘에 들어가야 할 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땅의 어두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본 시는 인생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전에 다윗이 지은 각각 다른 두 편의 비탄사에서 찬양부분을 발췌하여 하나로 편집한 혼합시입니다. 즉, 1-5절은 57:7-11절 부분에서, 그리고 6-13절 부분은 60:5-12절 부분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그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7-13절에서는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근거로 현재 직면한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는 사탄과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과거 신앙의 역사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구원의 뿔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한 인생임을 확신하며 담대히 살게 하옵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써 맡은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생은 누구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완전한 친구도 영원한 이웃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기적이고 기회적입니다. 자신의 유익에 따라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을 보아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서 철저하게 배신당한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배신자의 그 행위를 갚아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심판 받아 마땅한 배신자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6-20절에서는 그러한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구체적이고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31절을 통하여 곤고한 중에 처해있는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본 시에서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속성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즉 공의와 심판에 엄격하신 하나님과, 구원과 보호에 인자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부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반드시 공의롭게 멸하십니다. 반면에 원수들의 배신과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주변은 항상 악한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악한 세력들 속에서도 오직 공의와 은혜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진정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까이 가는 심령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자신의 죄성과 이 땅의 타락함으로 인해 연일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허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생각하면 다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본 시는 시편에 수록된 총 7편의 메시아 예언시 가운데 마지막 시입니다. 본 시는 시편 중에서 가장 분명하고도 온전하게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묘사합니다. 4절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직을 겸직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7절은 열방을 판단하실 심판주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본 시에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되면 인간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새벽이슬같이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 앞에 영광스럽게 나오게 되지만(3절)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은 주님의 분노로 인해 진멸되는 모습(5-6절)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벽이슬처럼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영광의 주님 앞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땅의 길을 담대히 달려갑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 제목 / ① 주님이 오실 그 날을 바라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업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 일 것입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나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로 따라 부르지만 내 노래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찬송 속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체험도, 묵상도 없기에 생각 없이 곡조만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외침인 '할렐루야'로 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시편의 제5권에서만 몇 번 나오고(시104-106; 111-113; 115-117; 135; 136; 146-150) 신약성경에는 계시록에만 나올 뿐입니다(19:1, 3, 4, 6). 시인의 외침은 강한 확신으로 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흥분된 어조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찬만해 집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며 더 연구하게 됩니다(2절). 그분의 행사는 존귀하고 엄위합니다(3절). 그 행사는 진실하며 공의롭습니다(7, 8절). 그러나 이렇게 깨닫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기 때문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4절).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찬송과 경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분의 성품과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사역(행사)이 생각할수록 놀랍기 때문입니다. 바른 찬송과 경배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잠잠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 확신과 찬송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바른 찬송이 나옵니다.

기도 제목 / ① 내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찬송과 경배가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② 찬양대원들이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이 시는 시111편과 짝을 이룹니다. 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리 하니 그의 백성들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영원합니다(시111:3). 그의 백성들의 의도 그러합니다(1-2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십니다(시111:4). 그의 백성도 그러합니다(4절). 하나님은 후하십니다(시111:5). 그의 백성도 그러합니다(5절). 하나님의 행사는 진실하며 공의로우십니다(시111:7). 그의 백성도 또한 그러합니다(5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1절). 오히려 속박이라고 여기고 악한 소욕을 좇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파멸에 이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10절).

하나님을 닮아 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 길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11:45).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시113편에서 시118편까지는 “할렐”이라고 불리며, 유대인의 축제 일에 부르는 찬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113과 114편은 저녁 식사하기 전 출애굽의 이야기를 한 후 이어 부르며, 시편115편에서 118편까지는 식사를 한 후에 불렀다고 합니다.

본 시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와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1-3절).” 하늘아래,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4-5절) 그 분은 존귀하시며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더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의 삶을 권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7-8절). 그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자녀를 둔 즐거운 어미가 되는 것처럼(삼상2:8 참고), 아무 것도 없는 우리가 생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9절).

여호와와 이름이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 분으로 인해 우리의 운명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찬송 받으실 이름, 그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높으신 이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② 각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어 날로 더욱 부흥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감동적인 영화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장면 한 장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아 평범하게 살다가 이 곳까지 왔구나' 하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의 삶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묻어 있습니다. 나 개인이 구원받는 그 시점부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추적해 돌려본다면 그것은 한 편의 영화가 될 것입니다. 물론 내 인생에 크나큰 장애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 앞에 그러한 장애물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3, 5, 7절).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참여할 기쁨이 될 것입니다(4, 6절).

그리고 지나온 인생의 길에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반석에서 나는 샘물처럼,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시원케 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8절, 고전10:4 참고).

우리 인생 길에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교회 다니는 게 인생살이 하는데 뭐 좀 도움이 되냐?”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불편하고 번잡스러우면서도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세상의 조롱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물욕과 탐심(골3:5)과 같은 종류의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무용지물인 것들입니다(4-7절).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며 우상을 만들고 섬깁니다(8절). 시인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조롱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께 눈을 돌려 믿음으로 그분의 도움을 얻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12-15절). 인생의 복이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13절).

탐심과 같은 우상이 추구하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기 백성에게 인자와 진실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1, 17, 18절).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불의와 부패를 소멸시키시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시의 저자는 다윗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아마 친아들인 압살롬의 천인공노할 반역으로 인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해 구원받은 자로서,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은혜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개인적 찬양시입니다.

본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로 극심한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시인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 갖게 되는 겸손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6절, 9절) 둘째 부분은 12절에서 19절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보답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서원을 굳게 지킬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인은 17절에서 19절에 구원을 체험한 자의 겸손과 성숙한 신앙에서 나오는 실천적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시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나아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됨을 인정하면서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써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②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찬양예로의 초청을 노래하는 '감사 예배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집회시 예배에 앞서 인도하는 송영으로 사용됩니다.

본 시는 전체가 5행으로 된 간단한 시로써 시편 전체 중에서 가장 짧은 시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이 저를 칭송할지이다"(1절). 여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대상을 선민 이스라엘로 하지 않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본 시는 만민 구원사상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2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모든 민족을 향해 베풀어질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장차 세계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을 찬양하게 될 것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지속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늘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도와 주며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는 희열이 가득찬 어조로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그러기에 본 시는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시로 불려지기도 하였습니다.

본 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찬양할 것을 권고하는 부분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를 후렴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5절에서 18절까지로 고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확신적으로 감사, 찬양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시기에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6절). 셋째 부분은 19절에서 29절까지로 고난 중에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체험 가운데 얻게 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확신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여호와와 전에 오르는 자들에게 임할 축복을 노래하는 부분(19-26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구원과 생명에의 축복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확신은 우리에게 벅찬 감격을 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의존하고 그 분만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늘 우리의 삶속에서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이 민족이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바른 회개를 함으로 영과 육이 다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세상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굳게 지키고 나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과 자세를 확고하게 재조명해 주는 일종의 '지혜시'입니다.

본 시는 176절로 되어 있는데 122절과 132절을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절이 '율법'과 관련된 단어 곧 법·증거·도·법도·규례·율법·계명·판단·약속·말씀 등이 나옵니다. 이는 본 시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여호와와의 법에 대한 서원, 9-16절은 행위의 기준이 되는 말씀, 17-24절은 끊임없는 즐거움과 모사로서의 말씀, 25-32절은 영혼을 소생케 하는 말씀, 33-40절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말씀, 41-48절은 담대함을 얻게 하는 말씀, 49-56절은 소망이 되는 말씀, 57-64절은 말씀에 근거한 긍휼의 호소, 65-72절은 고난을 통한 말씀에의 확신, 73-80절은 위안이 되는 말씀, 81-88절은 구원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 89-96절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97-104절은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 105-112절은 빛이 되는 말씀, 113-120절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말씀, 121-128절은 구원을 이루는 말씀, 129-136절은 경이로운 말씀, 137-144절은 의와 진리가 되는 말씀, 145-152절은 변치 않는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호소, 153-160절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구원, 161-168절은 말씀 사모에 대한 열망, 169-176절은 의로운 말씀에 대한 찬양 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의 인생 행로에 있어서 걸어가는 발의 동이요 그 길을 비쳐주는 절대 유일의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정은희 선교사(아프리카)와 허용구 선교사(르완다)가 현지에 잘 적응하며 뿌리를 내리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본 시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성전 순례시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곧 유월절·칠칠절·장막절에 여호와를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일컫습니다. 그러기에 성전 순례시는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새롭게 신앙을 가다듬는 목적으로 불려진 것입니다.

본 시는 짧지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분은 1절과 2절로써 하나님이 과거에 시인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회상하며 지금 자신이 처한 악한 세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여호와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은 3절과 4절로써 악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형식을 빌어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멸망하실 것을 단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부분은 5절에서 7절까지로 화평을 미워하는 그 악한 세태와 그 속에서도 화평을 구하는 시인의 열망을 대조하면서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탄식을 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본 시는 사악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도 악한 자들에 대하여 화평을 원하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평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하며,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화평을 원하신다.

기도 제목 / ① 악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열심을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시편은 우리에게 권능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분(1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이나, 도구에, 삶의 수단이나 이차적인 문제에 자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도움이 하나님에게 놓여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하며, 또 그의 권능과 인자하심, 그의 섭리와 은총 안에 우리를 향한 도움이 있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그의 모든 훈계에 따라 합당한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의무를 지킨다면 우리가 그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안전할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5절).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까? 그분은 졸지 않고 깨어 지키시는 자시며, 그가 지켜 주는 자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소생시키시려고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보호 아래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일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라도' 항상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며 항상 위로해 주시는 성령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도우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평생 의지합니다.

기도 제목 / 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소서. ② 권요셉 최은아 단기선교사(아프리카)가 원주민 교회 사역, 신학교 및 아랍어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의 즐거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까?

본 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부르도록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다른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중 예배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데서 즐거움을 취합니다(1, 2절). '여호와와 집에 올라가자'라는 초대에 다윗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중 예배에서 그분을 시중들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집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집에 올라가야' 할 것이며 거기에서 그분에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하여 서로 열심을 품고 권면하여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슥8:21)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호와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4절)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을 여호와와 전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84:10)라는 고백이 하나님께 드러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집에서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집을 더욱 사모하게 하소서. ②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면초가’라는 말을 아십니까? 사방이 꼭 막혀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삶의 현장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본 시는 저자나 배경이 분명하지 않으나 대체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고국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하자 익명의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느2:19; 4:4). 본 시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 1, 2절에서는 시인 자신의 심정을 상전이나 여주인의 긍휼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시인의 애절한 심정을 표현하고 있고 후반부 3, 4절에서는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처한 고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 시는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악한 자들의 박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바른 삶의 길과 자세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절망과 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공급하는 손을 바라는 것이며, 그의 도우시는 손을 바라는 것이며, 그의 보호하시는 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고치시는 손을 바라는 것이며, 그의 보충하시는 손을 바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도 제목 / ① 긍휼을 구할 때 들어주소서. ② 추진회, 이소영 평신도 단기선교사(스리랑카)가 영육이 강건하고 현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다는 경험을 해 보셨는지요? 그리고 그 때 도우심을 받았는지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본 시는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였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1-5절). 모든 것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마치 멸망이라도 시킬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을 잃고 이렇게 탄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지십니다(6-8절). 그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우리 편에서 가까이 해 주시는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셔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친히 승리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곤란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더욱이 죄와 사망으로 전혀 소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와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고(요14:6) 그 길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믿음과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소서. ② 험력선교사들(아프리카의 강기업, 이집트의 허요셉)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우리는 늘 삶의 형통함과 평안을 원합니다. 그러나 과연 어디에서 참된 평안과 형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본 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인들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본 시는 시편 제 1편과 마찬가지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어 의인에게는 끝없는 보호와 영광을(1-4, 5b절), 악인에게는 최종적 심판을 내리신 것을(5a절)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시인은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견고함과 안전을 '시온산'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거나 요동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 위험한 지경에 처하자 불안해하는 제자들의 태도를 보고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막4:35-41). 왜냐하면 천지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데 그들은 시선을 다른 곳에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평강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하심(2절)을 기억하십시오.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며 혹시라도 악인의 자리에 들어갈까 살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선인과 의인의 삶을 살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 ① 영원토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② LMTC(평신도 선교훈련원)의 교육을 통해 더 많은 평신도선교사들이 양성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한순간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의 모든 고생이나 고통들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믿을 수 없을만큼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면 더욱 환희에 젖을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말은 이제 다시는 예전의 고통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라는 것은 자유를 빼앗긴 채 억압당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죄의 포로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때는 나 자신이 그런 존재인지조차 몰랐었지만 지금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확실하게 알 것입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세상이 이끄는 데로 끌려 다니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하며,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에 눌러 신음하던 때였습니다. 죄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또다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도대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 속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까지 말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6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본다는 것은 더 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구원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기도 제목 / ① 주님 복음을 전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② 복한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헛바퀴를 도는 다람쥐를 보셨습니까? 아무리 뛰어도 그 자리에서 맴돌 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여도 아무런 결과들이 없을 때 나는 쉽게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도 틀림없고 진행도 부족함이 없는데 결과는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입니다(1절). 전도서에는 이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전1:2).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 가치도 없고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 의미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영원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일을 하고 수고로이 세월을 보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나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2절).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부여받은 인생은 평강이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인생은 행복합니다. 그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2절).

나의 자녀들에게도 참된 삶의 의미를 가르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기도 제목 / ①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 살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삶의 방향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특히 나의 가족이라면 이것만큼 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심각하며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가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으로 수고한 만큼 먹고 살 것이라고 하십니다(2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성실함으로 삶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정을 부양하며 식구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수고한다면 가정은 평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을 위해 내가 그야말로 수고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로 또는 어머니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양육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세상의 가정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기도 제목 / ①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② 충현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천국일꾼이 일어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오래 걷다보면 발뒤꿈치에 굳은살이 배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운동의 특징에 따라서 몸에 굳은살이 배기고 그 운동에 맞도록 적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여러 번 고통 중에 있다보면 그 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적응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바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괴로움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1절). 뒤돌아본다면 얼마나 싫고 두렵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자신의 등에 고랑을 갈아 놓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고 있습니까?(3절) 그러나 시인은 이제 당당하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이기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2절). 비록 상처는 낫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이기지는 못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고후4:9)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더 큰 고난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악인의 줄을 끊으실 것입니다(4절). 그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입니다(5절).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는 지붕 위의 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 / ①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사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② 5부 예배를 통해 주의 청년들이 복음에 매이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하나님의 백성들도 때론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슬픔이 밀려오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것같은 외로움에 잠겨듭니다. 그럴 때는 쉽게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 피상적으로 찾던 하나님, 당연히 함께 있다고 생각한 하나님, 별로 진지함 없이 습관적으로 하던 기도들... 바로 그런 것들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하는 사인(Sign)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다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5절). 그것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것은 순수하게 나 자신을 돌아 볼 수 있게 합니다. 감격으로 찬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다시 성령과 교통함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시인은 그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6절). 세상의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햇살이 떠오를 때 내 마음의 환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움을 몰아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 감격을 되찾으십시오.

기도 제목 / ① 내가 영으로 찬송하리니 나의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② 이 땅의 소외받은 자를 위해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다닙니다. 내 삶이 늘 평온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나 욕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 아주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한다면 나의 삶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평강 가운데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교만치 않는 것입니다(1절). 내가 교만하다면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미움과 질투가 넘칠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에 맞아야 하고, 내 기준에 맞아야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눈을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려다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고 갈보는 듯한 마음은 자신에게조차도 만족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내가 미치지 못하는 기이한 일에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꿈이 있으나 그것이 전혀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라든지 내게는 맞지도 않는 것이라면 쓸데없는 시간이나 힘을 낭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멀리하는 사람은 마치 젖을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있듯이 평온하고 고요할 것입니다(2절). 그 모든 것은 심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고 계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분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할 것입니다. 그런 삶이 부럽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기도 제목 / ① 주님,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구역공과 공부에 대해서 (꼭 읽어 보세요 !)

- ① 2001년도 2월부터 구역성경공부시간에는 매 주일의 설교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더욱더 준비된 마음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구역공과를 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공부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들어가면서 - 본문의 배경을 설명한다.

머물면서 - 본문에서 전달하려는 목적을 문제풀이 형식으로 공부한다.

나오면서 - 본문에 대한 결론 및 적용을 생각해 본다.

- ② 먼저 각 교구의 목사님들께서 한 달 동안 공부할 내용을 미리 다루시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구역장님들에게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역장님들께서 구역공과를 준비하시다가 의문이 생기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께 문의하셔서 해결하시고, 말씀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 ③ 각 교구의 구역장님들께서는 '주간충현'에 실리는 다음 주일 설교의 내용을 읽으시면 구역 성경 공부를 더욱 효과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간충현'에 실리는 설교가 그 주간에 실시되는 금요구역예배의 공과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일 미리 제시되는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④ 각 구역에 속한 성도들께서도 '주간충현'의 설교를 읽으시고 구역공과를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공과의 답이 '설교' 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설교 내용을 잘 소화하시면 구역공과는 저절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 ⑤ 구역성경공부 하시면서 모르는 부분을 억지로 풀거나, 그 동안 배우거나 들었던 자신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면서 연구하십시오. 그래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성경은 수험문제처럼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요구하는 핵심에 충실하셔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삶에 열매를 맺게 하면 될 것입니다.
- ⑥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것은 구역성경공부가 모임자체로 목적을 두는데서 벗어나서 더욱더 단단한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견해나 생각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구의 지도자와 구역장, 그리고 구역원 모두가 말씀 연구에 마음을 집중시키고 실제로 예배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충현의 모든 구역에서 매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구역성경공부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인 부흥과 충만함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 1 과

주의 만찬

찬송 / 284장(주 예수 해변서)

본문 / 눅 22:14-20

들어가면서(서론)

유월절 식사는 밤에 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월이면 오후 6시경에 해가 저물기 때문에 식사는 그 때 시작해야 했습니다. 명절 때는 친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보통 한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예수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하나의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식사 때는 '앉았지만' 유월절과 같은 명절 때는 '기대어서' 먹었습니다(개역 한글의 '앉으사'는 '기대어' 앉는 것을 의미). 그런데 이 유월절 식사에는 아름다운 약속과 스승을 팔아 넘기는 배신에 대한 암시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12,14절 -

②15,16절 -

③17,18절 -

④19절 -

⑤20절 -

2. 주의 만찬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들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① 주의 만찬은 ()하고, ()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운항 전에 연료를 재충전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점검하고 헌신해야 할까요?

② 주의 만찬은 ()의 () 행하는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③ 주의 만찬은 자기를 (), 주의 몸을 ()하여 대하는 시간입니다(고전 11:28,29). 이 시간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눅 22:33에 나오는 베드로의 각오는 왜 잘못된 것일까요?

④ 주의 만찬은 예수의 죽음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⑤ 주의 만찬은 ()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만찬을 마친 후,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지를 놓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나가면서(결론)

1. 유월절에 대하여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여러분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므로 실제적인 관계는 없고,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성찬식에 대하여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식은 여러분이 실제로 참여하고 영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 유월절과 성찬식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 어린양의 피와 포도주는 모두 죄를 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피).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제목 :

본문 :

제 2 과

큰 무리

찬송 / 416장(하나님은 외아들을)

본문 / 렘 31:1-9

들어가면서(서론)

여러분은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우선 예레미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요(1:1) 선지자로서(1:2), B.C 627-580년 사이에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요시아 왕-시드기야왕 까지). 그의 이름에는 '여호와가 세우신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썩은 띠' 라는 상징으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였는데(13:7),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20:4, 25:11-12, 29:10). 이로 인해서 반역자로 오해받기도 하였고,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예언한대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39:1-10). 물론 그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만은 아니었고, 훗날에 메시아로 인한 영광을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 사상을 심어주기도 하였습니다(33:14-16).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 ①1절 :
- ②2절-6절 :
- ③7절-9절 :

2. 본문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시다.

①1절, 2절, 7절 각각 처음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② 본문 중에서 7절-9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들은 누구에게 멸망당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③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은 여로보암이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리고 6절에 의하면 그가 저지른 행동은 어떤 잘못을 한 것입니까?

④ 7절에서 9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큰 무리를 만드십니까? 그리고 돌아오게 될 큰 무리 가운데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자들을 택하시는 것일까요?

⑤ 예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

라'는 말씀을 듣고 나오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7:9-10을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큰 무리들은 장차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⑥ 본문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울면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일까요?

나가면서(결론)

1. 예레미야 31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묻던 사건이 신약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렘31:8과 눅7:22을 보십시오)
2. 하나님은 그의 나라에 들어갈 대상으로 죄인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십니까?

-
3. 오늘의 제목인 큰 무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입니다. 즉, 인간의 죄악됨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입니다(요1:12).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와 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영원히 죄인으로 살아야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거듭남을 통하여 아들이 되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목 :

본문 :

한글학 연구

한글학회 (한글학연구회) 창간
15주년 기념 특집

(한글) 한글학 연구

한글학 연구는 한글의 본질과 사용의 원리를 밝히려는 학제적 연구이다. 한글의 본질이란 한글의 형태, 음성, 의미, 사용의 원리를 밝히려는 학제적 연구이다. 한글의 사용이란 한글의 형태, 음성, 의미, 사용의 원리를 밝히려는 학제적 연구이다. 한글의 형태란 한글의 형태, 음성, 의미, 사용의 원리를 밝히려는 학제적 연구이다. 한글의 음성이란 한글의 형태, 음성, 의미, 사용의 원리를 밝히려는 학제적 연구이다. 한글의 의미란 한글의 형태, 음성, 의미, 사용의 원리를 밝히려는 학제적 연구이다. 한글의 사용이란 한글의 형태, 음성, 의미, 사용의 원리를 밝히려는 학제적 연구이다.

제 3 과

원수의 장례식

찬송 / 390장(십자가 군병들이)

본문 / 수 10:22-27

들어가면서(서론)

여호수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인 1장-12장에는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인 13장-24장에는 '정착'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전쟁 준비(1장-5장), 정복의 시작(6장-8장), 정복의 완성(9장-12장), 그리고 5지파와 갈렙의 기업 분배(13장-17장), 7지파와 레위인의 기업 분배(18장-21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죽음(22장-2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정복 7년과 정착 18년, 모두 25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수1:1-9).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세 구획으로 나누었습니다. 가나안 중앙지역, 가나안 남쪽지역, 그리고 가나안 북쪽지역으로 나누어서 점령하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남쪽 지역에는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고, 극도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과 모든 족속을 멸망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져서 걸어서 건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이기로 하였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수 9:4-6).

물론, 이 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였기 때문에 속게 된 것입니다(수 9:14). 그러나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와 이름으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킬 수 없었습니다(수 9:18,19). 결국 기브온 족속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수 9:23). 이제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① 1절-5절 :

② 6절-11절 :

③ 12절-14절 :

④15절-21절 :

⑤22절-27절 :

2. 다음 질문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① 수 10:1-5에서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들은 두 가지 소식과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② 수 10:6-11을 보면 기브온 족속이 처한 위기는 무엇이며, 그들은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③ 수 10:12-14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④ 수 10:15-21을 보면 가나안 다섯 왕들은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막게다의 굴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발견되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다섯 동맹국가와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⑤ 수 10:22-27을 보면 여호수아는 포로로 잡힌 가나안 다섯 왕들을 어떻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했습니까?(신21:22-23)

나가면서(결론)

1.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19에서 우리도 기브온 족속처럼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택함을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가나안의 다섯 왕은 저주를 받았고, 소망도 구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좋은 피난처라고 생각한 동굴은 무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장례식은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지혜로 마련하는 피난처는 무덤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 6:15-16을 읽으시고 소감을 나누어 보십시오.
3. 사단은 예수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고, 무덤에 가두었으며, 파수꾼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완전하게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 의해 돌이 옮겨지고 예수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막 16:3-6). 예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다섯 왕, 즉 원수의 장례식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례식은 그 말대로 죽음이 가져다주는 슬픔과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 믿는 자들의 무덤에서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결을 떠난 죄인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죄인의 장례식은 영원한 슬픔과 절망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장례식이나 믿는 자의 장례식은 영원한 승리가 있습니다.

제목 :

본문 :

제 4 과

십자가의 길

찬송 / 135장(갈보리산 위에)

본문 / 마 16:21-27

들어가면서(서론)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잠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점은 그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 베드로가 즉시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16절). 그러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신적인 계시와 믿음의 고백 위에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18절). 또한 자신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21-27절).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머물면서(본론)

1. 먼저 오늘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배경을 요약 정리하여 보십시오.

- ① 13절-14절 :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와 제자들의 첫 번째 질문과 제자들의 대답
- ② 15절-16절 : 예수와 제자들의 두 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 ③ 17절-19절 : 예수와 제자들의 세 번째 질문과 대답
- ④ 20절 : 경계
- ⑤ 21절-23절 : 예수와 베드로의 차이
- ⑥ 24절-27절 : 제자의 조건

2. 다음 질문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 ①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임 당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광경이 나옵니다. 그러자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왕국을 기대했던 제자들에게는 무척 곤혹스러운 이야기로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예수께서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오해했을까요(마13:2, 14:14-36, 15:1-39)?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②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것에 대해 교육 하실 때, 베드로의 반대가 반작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얻으려는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시도 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죄 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계1:5)?

③ 본문 2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부 르십니다. 여기서 십자가는 복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어떤 복종의 본 을 보이셨습니까(눅22:42, 빌2:6-8)?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27절)?

④ 본문 25-2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 게 목숨이 걸린 심각한 제안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이 부활이요,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 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 까?

나가면서(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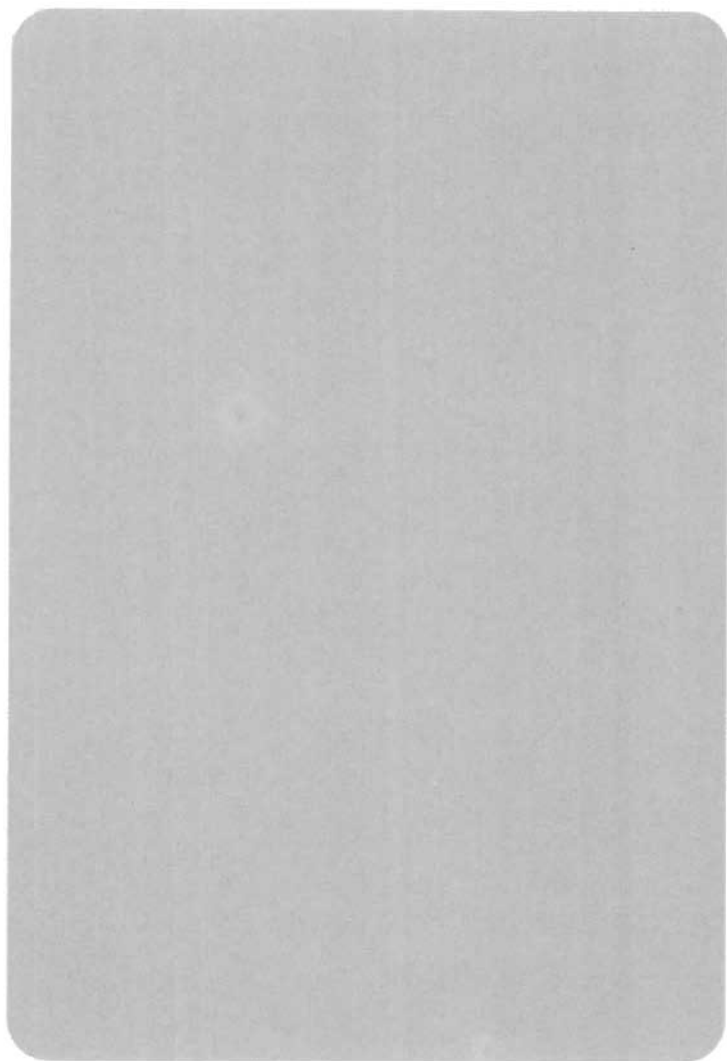
예수께서 마태복음 16:24에 제시하신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① 첫째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강제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If any man)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스스로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 ②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은 낮아지고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주님께서 높아지시고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해 죽었던 인간의 상태는 심각하며, 그 증상은 고난대신 죄와 쾌락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아와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갈2:20).
- ③ 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의 경고는 십자가를 반대한 베드로 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 대한 일격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자기를 부인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포기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과 십자가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면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④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아를 부인할 때 오는 실제적인 고통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경제적 희생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실천이며(마4:20-22), 인간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감당하는 것이고(마8:21,22),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는 정신적 희생도 감내하며(고전1:18), 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는 신체적 희생을 수용하고(고전4:10-16), 시간적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어떻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며(행1:8),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주께 기도하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넉넉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와 헌신을 베푸실 것이며, 장차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보여 주실 것입니다.

제목 :

본문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인도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33 과

봉사하는 삶

찬 송 / 378장
읽을 말씀 / 고전 13:1-3
외울 말씀 / 고전 15:58

갈 5:13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죄된 자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 5:15에는 이와는 반대의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서로 물고 먹는 삶입니다. 그래서 피차 멸망하는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격하게 되는 삶의 모습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발을 씻기실 정도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죄로 물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우리 주님의 피와 눈물의 봉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의 각 항목들을 보면서 말씀에 입각하여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시오.

1. 왜 봉사를?

왜 봉사를 해야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봉사의 삶이지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 요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벧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2. 누구에게 봉사를?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봉사의 대상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봉사를 해야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힌트를 얻어 봅시다.

-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 무엇으로 봉사할?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봉사해야 합니까? 물질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봉사입니까? 몇 년동안 봉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전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뿡과리가 되고

고전 13:2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 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봉사의 자세는?

당신이 봉사하는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점검해 보겠습니까?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 드리려고 했을 때 그가 취한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진정한 봉사의 자세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눅 7:36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눅 7:37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

눅 7: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로 씻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5. 봉사의 원동력은?

당신 자신의 힘으로만 하는 것입니까? 예! 당신 자신의 힘만으로도 봉사의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영향력있는 봉사를 위해서는 봉사의 원동력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딤후 1:8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 1: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6. 봉사의 열매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귀한 열매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딤후 4:7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딤후 4:8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 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딤후 3: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고전 15: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7. 각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
고 기도제목들을 한 두가지 나누시고 난 이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영: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가정예배 안내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 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합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의 만나 · 2001년 5월호 · 발행인 / 김성관 · 편집인 / 노광현

· 집필진 / 만나 : 여국근, 김교성, 송길환, 이수근, 이유진, 안창덕 목사

· 구역예배공과 : 김동하 목사 / 남성구역예배공과 : 이준경 목사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